



### 1월의 기도

1. 올 한 해 동안 저희 DCEM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저희가 이곳에서 일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에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저희 회사를 지켜주시고, 모든 직원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고, 선교의 에너지가 넘쳐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모든 결정과 행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회사와 모든 직원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2.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손길로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 속히 모든 분쟁이 순리대로 해결 되게 하시고 2025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이 속히 이뤄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이 하나 되어 평화와 화합을 이루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어,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새해에 새 이름을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듣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세기 2:20)

오늘 아침 새해의 찬란한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추며 떠올랐습니다. 태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똑같은 태양 아래 산다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매일의 삶을 창조와 승리와 복으로 채워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괴로워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주어진 날들에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언제나 사람이나 사물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혜롭게 붙여주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즉 성격과 운명을 규정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운명을 변화시키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이름부터 먼저 바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란 히브리어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운명은 바뀌었고, 그는 새 이름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해에도 이름을 붙여 주면 새해의 성격과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해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습시다. 아담에게로 짐승을 이끌어 가서서 그 이름 짓는 광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름 짓는 광경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새해에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지어 주시겠습니까?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 되돌아보는 DCEM 2005년 해외성회

### 비전 2005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



① 조용기 목사의 설교에 앞서 찬양하는 성도들 ②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 ③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목회자와 성도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미국 시애틀은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아마존닷컴' 등 우수 기업체들의 본거지로 유명하다.

미국 북서부 중심도시 시애틀에서 2005년 3월 조용기 목사 초청 '비전 2005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가 크리스천페이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시애틀 최대 교회인 '크리스천페이스센터'가 주최하고 DCEM이 후원한 2005



▲크리스천페이스센터 서점에는 조용기 목사 저서 '4차원의 영성'이 볼티나게 판매됐다

년 시애틀 컨퍼런스는 목회자를 비롯해 선교사, 장로, 신학생, 예배기획 담당자, 청년사역자, 셀리더 등 북미지역 교회 리더들이 대거 참석, 행사기간 동안 총 3만여 명이 참석했고 3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던 성회기간 동안 조용기 목사는 10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설교했다. 당시 성회는 문화와 상업의 중심도시인 시애틀에서 미국 북서부지역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심어준 성회로 기록되었다.

당시 컨퍼런스에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조용기 목사는 '효과적으로 목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교하며 그 중 '예배와 교제 그리고 기도'에 대해 강조했다. "교회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교제'의 회복"이라고 전제한 조목사는 이 두 가지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믿음의 기도(Task Prayer)'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령과 교통하며 목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조용기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참석한 목회자들로 하여금 "인본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사고"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하지 깨닫도록 말씀을 전했다. 더불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믿음은 곧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 내는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회를 주최한 캐시 트리트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조용기 목사님은 전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귀감이 되는 목회자이며 나의 스승"이라고 소개한 뒤 자신이 조용기 목사의 목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을 통해 지금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 캐시 트리트 목사와 사모 웬디 트리트 목사가 설교했으며 래리 맥컬리(남아프리카공화국 레마교회), 브라이언 휴스턴(호주 힐송교회)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 당시 시애틀 컨퍼런스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믿음을 갖는 성회로 기록된 성회였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 8:1-11)

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로써 그 여자를 친다면, 그 돌로써 자기를 쳐야지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여자를 때리지 못하고 피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12)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평판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2.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세금쟁이였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있던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위로하겠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있는 곳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짊어지고 그 죄를 자기가 덮어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직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 “여자가 고개를 들어라. 너의 주위를 살펴봐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 예수님은 정죄치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못났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못한 사

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된 새 타작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놓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강도도 심판을 받아서 못 박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욕을 했지만 다른 편의 강도는 “야, 이 자식이야, 너와 나는 정당하게 심판을 받고 우리 지은 죄 값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여기 이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친구가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분을 그렇게 욕해서 되겠느냐.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주세요.”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한 생애 죄악을 짓고 흉악한 강도로서 살았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낙원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 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보고 “저 자식, 헛된 소리를 한다”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자기 인생에 연결 시켜서 그 사람 죄를 다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 청산하고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그건 3차원의 세계에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버드 대학 안 나왔습니다. 사도바울도 서울대학 안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오른팔은 예수님, 왼팔은 성령님, 그 두 팔을 가져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두 팔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타작 기계가 되어서 변화와 축복을 가져오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사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들어오는데, 고함 소리, 욕하는 소리 그리고 여인의 울음소리가 순식간에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군중들이 길을 비키는데, 그 사이로 한 여자가 질질 끌려 들어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동댕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울무에 잡아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별도로 없이 “돌로 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서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눈을 마주쳐 꿇음을 듯이 보시고 난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슬며시 내던져놓고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자기들이 그 여자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지었고, 자기들



##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 소크라테스 -

DCEM Happiness Master Card

한해동안 저희 DCEM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행복과 소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DCEM가족 일동

HAPPYLOG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자주 듣게 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는 말이 있다. 한자어 그대로 풀면 “묵은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옛관가에서 전임자를 보내고 후임자를 맞이하는 것이 그 유래다. 현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다”라는 의미로 널리 쓰인다.

여기서 같은 음으로 읽지만 뜻은 다른 동음이의어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뜻의 ‘송구영신’(悚懼靈新)이다.

송구(悚懼)는 ‘죄송하다’는 뜻이다.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은 언제나 참 송구하다. 사랑과 충성으로 행하지 못하고 게을러 열심을 내지 않았던 일, 참지 못해 용서치 못하고 절제하고 감사치 못한

일들이 그저 송구할 따름이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스스로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다고 인정하는 ‘송구’의 태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상한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영신(靈新)은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영(靈)은 마음이고 생각이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 바뀌지 않으면 몸도 변하지 않는다. 새해에는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 진실과 성실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영이 변화된다면 스스로 달라지고 주위 사람이 달라지고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가 분명히 달라진다. 새해라는 시간의 흐름과 반복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임을 잊지말자.

\* 1월호 영산강해는 쉬어갑니다.